



‘최병우 기자회견’ 전설 만든 정열의 언론인

김영희 ·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연구교수

최병우(崔秉宇)

(1924 ~1958)

우리나라 언론인 가운데 기자생활이 6년 정도였던 인물이 “한국신문사의 한 페이지를 영원히 장식하리라”고 평가되고, 해방이후 한국 신문사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인물의 반열에 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최병우 외에는 거의 없을 것 같다. 한 마디로 말해서 최병우는 “한말에서 일제시대에 걸치는 동안의 우리나라 언론인들이 지녔던 지식적 풍모를 이어 받으면서 그가 언론계에 몸담았던 1950년대의 시대 상황이 언론인들에게 요구했던 정열을 가슴에 불태운 사람이었다. 그는 또 한걸음 더 나아가 다음 세대의 언론인들에게 필요한 지성과 식견을 한 몸에 지녔던 사람이었다.”

그는 기자로서 기사를 통해 새로운 시도와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그 이상으로 젊은 기자들의 연구친목단체 창립, 신문의 날과 신문윤리강령 제정 등을 주도하고 신문편집인협회 창립을 이끌어 1950년대 한국 언론계에 새로운 풍토를 형성시켰다는 점에서 언론 역사에 남는 인물이었다. 그는 1958년 인도네시아에 특파원으로 파견되어 활동하다가 1958년 9월 26일 금문도 앞 바다에서 순직했다. 그의 나이 34세였다.

“한말에서 일제시대에 걸치는 동안의 우리나라 언론인들이 지녔던 지사적 풍모를 이어 받으면서 그가 언론계에 몸담았던 1950년대의 시대상황이 언론인들에게 요구했던 정열을 가슴에 불태운 사람이었다. 그는 또 한걸음 더 나아가 다음 세대의 언론인들에게 필요한 지성과 식견을 한 몸에 지녔던 사람이었다.”

최병우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지만, 1984년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에서 펴낸 ‘신문기자 최병우’와 1992년 간행된 정진석의 ‘기자 최병우 평전’ (관훈클럽·최병우기념사업회)은 그를 알 수 있는 기본문헌이다.

책에 빠져, 고교시절 장서 800권

최병우는 1924년 전남 목포에서 최건홍과 허고도의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금융조합에서 일하다 호남은행의 목포지점장을 지냈다. 최병우는 보통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전학했다. 최병우의 부모가 자녀들의 교육과 일류학교 진학을 위해 서울로 이사했기 때문이었다. 최병우는 1937년 4월 제일고등보통학교(이듬해 3월 경기중학교로 개칭)에 입학해, 1942년 3월 졸업했다. 그는 그해 4월에 일본 고치(高知)고등학교 문과에 입학, 1944년 가을 졸업했다.

그는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틈틈이 책을 사 읽었다. 최병우가 귀국했을 때 하숙집 주인이 책을 보내 주었는데, 그 때 이미 장서가 800권 정도였다. 그 후에도 최병우는 꾸준히 책을 가까이했다.

이어 1944년 10월 센다이(仙台)에 있는 도호쿠(東北)제국대 법문학부 법학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전쟁말기로 대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실정이었고, 대학생들이 학병으로 끌려가는 상황이어서 그는 바로 귀국했다.

그의 가족은 아버지 사업이 여의치 않아 그가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목포 근교의 농촌으로 다시 낙향해 있었다. 귀국한 최병우는 1945년 6월 소집영장이 나와 일본군에 입대했다가 해방이 되었다. 그는 그해 9월 중순 고향에 돌아왔다. 이어 곧 상경하여 미 군정청 외무처 문서과에 들어갔다. 대학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해방 후 남한은 미군이 9월 8일 서울에 입성하여 군정이 시작되었다. 당시 미 군정청은 한국인 직원들을 위한 영어강습소를 설치해 회화를 가르쳤는데, 최병우는 이 영어강습소에서 영어를 배웠다. 중학시절부터 영어에 대한 감각이 있던 최병우는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게 되었다.

미 군정청 외무처는 교포의 귀국을 돕기 위해 일본의 세 도시에 연락사무소를 두었는데, 최병우는 1947년 말 도쿄 공관에 섭외담당관으로 파견되었다. 1948년 8월 15일 제1공화국 정부가 수립



홍종인 당시 조선일보 주필(가운데)과 함께한 최병우(왼쪽)

된 후 한국정부의 주일대표부는 미 군정청 주일 연락사무소의 기능을 인수했다. 당시 최병우의 직급은 미군정의 8급으로 한국정부의 서기관에 해당되었다. 최병우는 1950년 5월 제일교포 실업가의 딸 김남희와 결혼했다.

장기영 만나면서 운명 바뀌어

최병우는 주일대표부에 근무하던 때 장기영을 만났다. 한국은행 조사부장 장기영은 1950년 1월 한국은행 도쿄지점 개설을 위해 도쿄에 갔다. 최병우는 장기영의 한국은행 도쿄지점 개설업무를 도왔다. 함께 일을 하며 장기영은 최병우의 뛰어난 능력을 알게 되었다. 최병우는 그해 6월 주일대표부를 그만두고 한국은행으로 직장을 옮겼다. 장기영을 만나면서 최병우의 운명이 크게 바뀌게 된 것이다.

6·25전쟁이 일어난 것은 그가 한국은행 근무를 시작한 직후였다. 1951년 겨울 최병우는 본점 문서과 참사(문서과장 대리)로 발령되어 피난수도 부산에 부임했다. 그러나 1952년 3월 한국은행 부총재였던 장기영이 사임하면서 최병우도 은행을 떠나게 되었다. 장기영은 한 달 후 조선일보 사장직을 맡았다. 당시 조선일보는 시주 방응모가 6·25때 납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952년 이른 여름 최병우는 장기영과 함께 언론계에 들어왔다. 조선일보의 부장 없는 외신부 차장으로 기자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최병우가 언론계에 들어와 높은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정전협정의 취재보도 때문이었다.

그의 아내 김남희는 그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한 것은 판문점 회담 때라고 한다. 휴전회담이 진행중이었던 당시, 정부는 아직 부산에 있었다. 전쟁으로 파괴된 서울은 여러 가지로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판문점을 왕래하면서 그는 회사차도 제대로 타지 못했다. 무거운 타자기를 들고 매일 아침 외국 특파원이 많이 숙박하고 있는 내자아파트에 가서 그와 친했던 영국기자의 차를 얻어 탔다. 판문점에서는 취재한 기사를 본사에 보낼 전화도 없었다. 저녁때 서울로 돌아와 회사에서 늦게까지 정리해야 했다. 밤늦게 돌아오고도 다음 날 새벽이면 서둘러 타자기를 들고 뛰어가곤 했다.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용돈이 충분하지 못해 점심을 굶는 수가 많았다. “체대로 자지도 못하고 체대로 먹지도 못한 채 전력을 집중하여 판문점을 왕래”하면서 취재보도에만 열중한 것이다.

1958년 최병우는 대만해협 위기를 취재하라는 본사의 긴급지시를 받았다. 대만의 국부군이 장악한 금문도를 중공군이 공격한 것이다. 최병우는 철저한 기자의식으로 1차 상륙 당시 금문도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몸으로 9월 26일 금문도 상륙을 다시 시도하다 금문도 앞바다에서 순직했다.

1953년 7월 27일 지루하게 계속되던 휴전회담이 끝나고 휴전협정이 조인되었다. 휴전협정 조인에 대해 최병우는 “기이한 전투의 정지, 당사국 제쳐놓은 결정서로 종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1953년 7월 29일자 ‘조선일보’의 1면 머리기사였던 이 기사는 신문기자 최병우의 식견과 관찰력, 문장력을 잘 드러낸 기사였다. 다음은 기사의 앞부분이다. 조풍연이 평가하듯 1950년대 초반 장문의 보고 기사에 서두를 요약하는 솜씨를 보여준 사람이 많지 않던 시절 최병우는 기사에서 리드를 뽑아낼 줄 아는 인물이었다.

기사에서 리드 뽑을 줄 아는 인물

백주몽과 같은 11분간의 휴전협정은 모든 것이 상징적이었다. 너무나 우리에게는 비극적이며 상징적이었다. 학교 강당보다도 넓은 조인식장에 할당된 한국인 기자석은 둘 뿐이었다. 유엔측 기자단만 하여도 약 100명이 되고, 참전하지 않은 일본인 기자석도 10명을 넘는데, 휴전회담에 한국을 공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볼 수 없었다. 이리하여 한국의 운명은 또 한 번 한국의 참여 없이 결정되는 것이다.

휴전협정이 성립된 후 포로교환이 진행되었다. 포로교환은 중립국 감시단이 맡고, 영어를 사용해 판문점 출입기자들은 영어를 어느 정도 해독해야 했다. 이 때 돋보인 사람이 바로 최병우였다. 영어에 능숙하면서 해박한 역사지식, 예리한 관찰력과 판단력으로 국내외 기자들 사이에 명성이 높았다. 조세형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기자를 태운 군용 버스가 판문점을 갈 때마다 혹은 올 때마다 최병우 기자가 버스 한복판에 서서 무엇인가를 꼭 설명해야만 했다. 미국 기자들이 자꾸 질문을 하니깐 최형은 별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소리로 설명을 하다가 마침내는 버스 복판으로 밀려나 서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되곤 하였다. ... ‘최병우 기자회견’이 점차 자리를 굳혀가자 나중엔 염치불구하고 한국 기자들도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한국 기자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판문점의 회담 내용과 미군 공보장교의 브리핑 내용이었다. 미군 발표를 눈치껏 짐작하곤 했었지만 그걸 갖고 기사를 쓰기란 어렵도 없었다. ... ‘최병우회견’에 한국 기자들이 참여하고 나서부터 국내 신문의 판문점 기사는 한결 정확해졌다.”

‘조선일보’는 장기영이 사장을 맡은 이후 경영

이 점차 정상화되었다. 그러나 장기영은 2년 만에 물러나고, 바로 '태양신문'을 인수해 1954년 6월 9일 본격적인 상업신문을 표방한 '한국일보'를 창간했다. 최병우는 그를 따라 나와 외신부장이 되었다. 최병우는 '한국일보'의 사세확장을 위해 주간부록 서비스를 시작하게 했고, 그 해 7월 체계적인 기자공개채용제도인 견습기자제를 실시해 '한국일보'를 우리나라 최대 기자 양성기관 구실을 하게 이끌었다.

최병우는 1955년 2월 한 달 동안 영국정부의 초청으로 영국의 언론계를 시찰했다. 귀국한 후 그 해 가을 부국장이 되었다. 그 해 초겨울에는 대한해운공사 기획실장으로 잠시 언론계를 떠났다가 1956년 6월 코리아타임스 편집국장 겸 한국일보 논설위원으로 언론계에 돌아왔다. 이때부터 조난당할 때까지 2년 반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최병우는 신문기자로서 중횡무진 열정적인 삶을 살다갔다.

불평과 존경을 한 몸에 받은 '드라쿨라' 국장

코리아타임스 편집국장으로 취임한 그는 번역 위주였던 지면구조를 바꿔, 기자들이 직접 취재해서 기사를 쓰도록 했다. 그는 취재와 기사작성, 편



조난 직전 상륙선을 타고 금문도 상륙을 시도하고 있는 최병우 특파원(화살표 아래)

집지도에 만족할 때까지 밤늦도록 기사를 고치고 또 고쳤다. 밤이 깊으면 기진맥진한 부하기자들에게 그는 지겨운 존재였고, 공장에서는 그의 집념과 열정을 저주하다시피해서 별명이 "드라쿨라"였다고 한다. 드라쿨라 국장의 편집지도를 받은 사람들은 가식도 요령도 없는 그의 신문제작 열정에 불평을 많이 하면서도 존경했다.

그는 또한 기자들의 연구, 친목단체 창립에 주도적이었다. 미 국무성 초청으로 5개월간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신문이론과 제작과정을 공부한 제1차 연수자 박권상, 조세형, 진철수 등이 최병우와 의논해 1957년 1월 11일 관훈클럽을 창립한 것이다. 당시 사회는 전쟁의 혼란에서 벗어나 차츰 안정을 찾아가던 때였다. 그러나 이승만정권의 독재와 부패로 언론계는 여전히 투쟁일변도의 성격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기자들이 함께 공부하

“기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고루 갖춘 보기 드문 기자였다. 해박한 역사지식이 있었고 역사 의식이 강했다.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사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관찰력이 대단하였다. 탁월한 표현력이고 문장력이었다. 진실을 밝히고 추구하고 표시하는 데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정열과 집념이 있었다.”

고, 신문발전의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면서 친목을 다지고자 한 것이다. 이 모임의 리더였던 최병우를 모두 ‘최고위원’으로 불렀다. 공식직함은 아니었지만, 조직을 이끄는 그의 리더십과 그에 대한 회원들의 존경심을 보여주는 호칭이었다.

관훈클럽이 창립된 후 최병우는 신문주간과 신문의 날을 제정하여 새로운 신문기풍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그해 창간 61주년이 되는 ‘독립신문’ 창간기념 행사도 준비한 것이다. 일제시기, 미군정기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며 역사를 되돌아보고 기념하는 여유를 갖기 어려웠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그의 깊은 역사적 안목을 짐작할 수 있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로 중진언론인들의 모임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창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최병우는 이 단체 창립을 적극 뒷바라지했다. 편집인협회 규약, 선언문과 신문윤리강령까지 최병우를 중심으로 한 관훈클럽 회원들이 준비했다. 그렇게 해서 1957년 4월 7일 신문의 날에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창립되었다. 다음날 편집인협회가 주최가 되어 신문주간 기념식이 열리고 독립신문 창간 6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신문윤리강령을 선포했다.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것이다.

그 한가운데 최병우가 있었다. 그는 한국신문편집인협회의 초대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 해 6월 서울외신기자클럽, 한국일간신문발행인협회가 창립되었고, 7월에는 한국통신협회가 창립되었다. 이러한 언론단체가 조직된 것은 관훈클럽과 편집인협회 창립이 여러 면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듯 1957년을 바쁘게 보낸 최병우는 1958년 5월 인도네시아 특파원으로 파견되었다. 그는

최병우 약력

1924년	전남 목포에서 출생
1944년	일본 도호쿠(東北)제국대 법문학부 법학과에 입학
1945년	미군정청 외무처 근무
1951년	한국은행 근무
1952년	조선일보 외신부 차장, 부장
1954년	한국일보 외신부장
1955년	한국일보 편집국 부국장
1956년	코리아타임스 편집국장 겸 한국일보 논설위원
1957년	언론인 연구·친목단체 관훈클럽 창립 주도 신문의 날 제정, 신문주간 행사 추진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창립 발기인
1958년	인도네시아 내전 취재
1958년	대만해협의 중공포격전 취재 중 조난(34세)

1958년 5월 먼저 싱가포르로 가서 취재활동을 벌이다가 7월 인도네시아에 들어가 한 달여 동안 취재했다. 외교관계가 없던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 기사로서는 최초의 취재활동이었다. 싱가포르에 돌아온 최병우는 대만해협 위기를 취재, 보도하라는 본사의 긴급지시를 받았다. 대만의 국부군이 장악한 금문도를 그해 8월 23일부터 중공군이 공격한 것이다.

최병우는 철저한 기자의식으로 어쩌면 다소 무모하게, 1차 상륙 당시 금문도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몸이었는데도 1958년 9월 26일 금문도 상

륙을 다시 시도하다 금문도 앞바다에서 순직했다.

박학다식, 다재다능

이와 같이 최병우는 신문기자 생활을 시작한 이후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활동한 인물이었다. 박권상은 최상의 표현으로 최병우를 평가했다. “우선 정직성에 있어서는 감히 농담도 걸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순수한 사람이었다. 일에 있어서는 물불 안 가리고 밤낮 안 가리는 활동가였다. … 옹고 그리고 등 사리가 분명하고 시와 비 등 판단



“세상에 빛을 뿌리는 별”

최병우 일화


최병우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놀라울 정도로 최상급이다. 반드시 고인에 대한 예의 때문만은 아닐 것 같다. 최병우는 “지금도 내 가슴 속에 살아 있는 우상이자 세상에 빛을 뿌리는 하나의 뚜렷한 별”로 기억되는 인물, “항상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던 친구, 그야말로 그는 나의 외우(畏友)”라고 평가된 인물, “그에게는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었다. 우리를 끌어당기는 어떤 자성(磁性) 같은 것”이 있었던 인물이었다.

사교적이어서 교제범위도 매우 넓어 외교관, 외국 유학생 등 외국인도 많았다. 당시 영국 왕립아시아학회의 유일한 한국인 정식 회원이기도 했다. 최병우는 책과 공부, 올곧은 삶의 자세 역시 대단한 수준이었다.

최병우의 부인 김남희는 신문기자 생활을 시작한 그의 생활이 공부와 일 밖에는 아무 것도 안중에 없는 것 같아 보였다고 회고했다. “사실 그의 공부에 대한 열정은 반 미친 사람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그

이 명쾌했다. 영어와 한문에 능통하여 동서학문을 두루 섭렵하였고 특히 구한말 역사에 관한한 전문가들을 뺄릴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는 기자였다. 기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고루 갖춘 보기 드문 기자였다. 우선 해박한 역사지식이 있었고 역사의식이 강하였다.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사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관찰력이 대단하였다. 물론 탁월한 표현력이고 문장력이었다. 진실을 밝히고 추구하고 표시하는 데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정열과 집념이 있었다.”

기자생활이 불과 6년 정도였음에도 최병우는

이처럼 높은 평가를 받는 인물이었다. 물론 그의 새로운 시도와 활동을 교만한 것으로 보고, 소영옹주의로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다. 1957년 관훈클럽, 편집인협회 조직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았을 때는 같은 신문사 동료들의 불평도 있었다. 그러나 그를 이해하는 친구, 동료, 선배들이 하나 같이 “기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고루 갖춘” “멋있고 완벽한 참 언론인” “학식 있고 관용과 인애의 정신이 풍부하고, 행동이 과감한” 진정한 신사, “조직자와 통솔자에 겸하여 계몽주의자”로 평가한 인물, 그가 최병우였다. 

는 밤마다 지쳐서 돌아왔지만 한 번도 그대로 잠들어버리는 일은 없었다. 꼭 냉수로 씻고 나서 책을 들고 잠자리에 들어갔다. 졸음이 와서 모르는 곁에 책 위에 엎드려 잠들어버릴 때까지는 3시가 되면 4시가 되면 머리맡에 놓은 위스키나 왜공을 벗 삼아 탐독하기가 일쑤였다”는 것이다. 책의 주제범위는 상당히 광범해서, 특히 한국의 역사와 풍속사, 정치, 외교 등이 많았고, 영어서적도 많았다.

“틈만 있으면 현 책집을 누비질하여 전차 값도 남기지 않고 주머니를 툭툭 털어서 샀다. 그래서 나는 이사할 적마다 늘어가는 그의 책을 처리하기에 골치를 앓았다”고 한다. 그의 책 수집은 이미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가회살롱으로 불리면서 사람들이 모이곤 했던 그의 집에 들른 인물 가운데는 “그의 방바닥에 높이 쌓인 책 더미에 눈이 황홀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는 사람도 있었다.

최병우는 능력을 인정받아 외국 유학을 권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외국 정부의 돈을 받아서 공부하기는 싫다고 하면서 거절했다. 월급을 많이 준다면 외국신문 지국에서 채용하겠다는 제의도 있었으나 그는 직장을 옮기지 않았다. 적은 월급으로 궁핍했던 시절이었다.

그러면서도 부인 김남희는 “그는 10여 년 전에 만든 유행이 지나고 깃이나 소맷부리가 닳아 해진 옷을 거리낌 없이 100년을 하루같이 걸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옷으로 화려한 연회에도 갔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단정하였고 나의 눈에는 훌륭하게만 보였다. 우리들은 파티에 갈 적마다 두 사람의 옷을 제복이라고 부르며 마주 웃었다”고 회고했다. 단순한 신문기자라기 보다는 애국지사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한 그런 인물이었다.